

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

박성진·김승애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턴)

1. 이집트 일반연왕

1.1. 개요

이집트아랍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은 동북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이다. 동쪽으로는 홍해,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으며, 서쪽으로는 리비아, 남쪽으로는 수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집트는 전 세계 물류이동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시나이 반도를 끼고 있으며 세계 해상운송의 10%를 담당하는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다. 국가 면적(country area)은 100만 1,450km²로 한반도의 약 5배이며 주로 건조한 사막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집트에 산악 지형은 0.1%에 불과하며, 전체 면적의 3.78%만이 경작이 가능한 농경지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지만 일부 지식인들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한다. 인구는 약 9,116만 명이며 인구의 85%가 수니파(Sunni) 이슬람교도이다. 나머지 10%는 콥트 기독교 신자이다.

* (psjpower3@hufs.ac.kr), (sakim0912@krei.re.kr).

표 1 이집트 국가정보

국명	이집트아랍공화국(Egypt, Arab Republic of Egypt)
위치	동북아프리카 지중해 및 홍해 연안
면적	100만 1,450km ² (한반도의 약 5배)
기후	아열대성 사막 건조기후
수도	카이로(Cairo)
인구	국내 9,116만 5,852명(2016년 7월 기준), 국외 800만 명 가량. 인구성장률 2.2%(2014년)
주요 도시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이스마일리아, 포트 사이드 등
인종	아랍(95%), 베두인, 베르베르, 누비아, 베자, 돔 등 소수민족(5%)
언어	아랍어(현지 상용어는 아랍어이나 상거래 시 영어가 어느 정도 통용됨)
종교	수니파 이슬람교(85%), 콥트 기독교(10%), 기타(5%)
건국일	1953년 6월 18일(공화국선포일)
정부 형태	입헌공화국
국가 원수	압델 파타 엘 시시(2014년 6월 8일, 대통령 취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그림 1 이집트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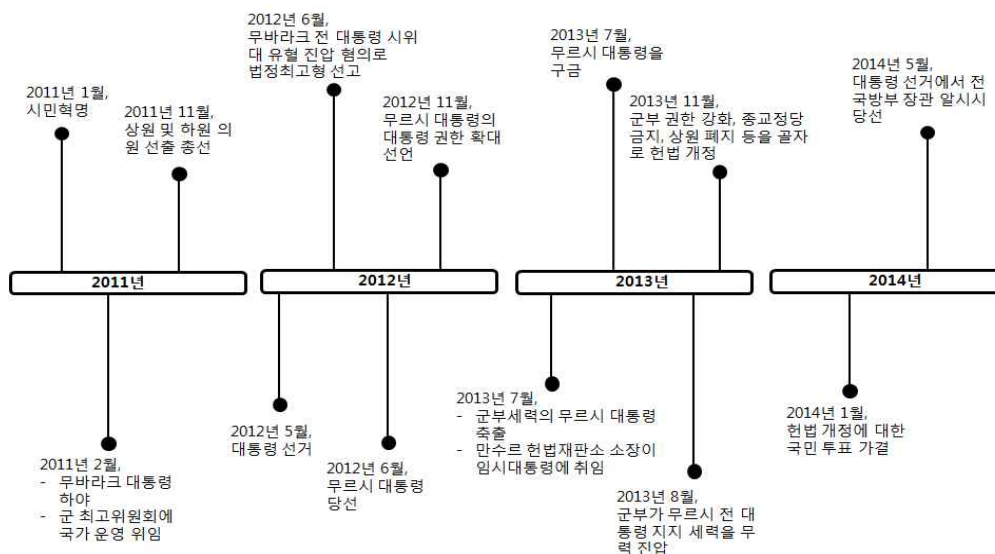
자료: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1.2. 정치 및 사회 동향

이집트의 정치 상황은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반정부 시위를 기점으로 급변하였다. 반정부 시위가 발발할 당시 이집트의 대통령은 무바라크였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자신의 차남 가말 무바라크(Gamal Mubarak)에게 권력을 승계할 계획을 가지고 2007년 헌법을 개정하였다. 대중은 무바라크 정부의 반민주적 조치에 반발해 시위, 파업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였지만 무바라크는 이를 무력으로 제압하였다. 2011년 1월 25일, 지속된 공포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대규모 민중 봉기로 이어졌다. 군부마저 무바라크 대통령에 반기를 들자 2011년 2월 11일 무바라크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하며 이집트 군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the Armed Forces)에 전권을 이양하였다.

30년 가까이 독재 정권을 유지한 무바라크가 사퇴한 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모하메드 무르시(Mohamed Morsi)가 2012년 6월 선출되었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집트 국민은 민주적인 정부를 기대하였지만 무르시는 이슬람주의적이고 권위적이었다. 2013년 6월, 무르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봉기가 일어났다. 군부 또한 무르시가 사퇴할 것을 압박하였고 무르시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1년 만에 물러난다. 무르시 지지자들이 무르시 퇴진 반대운동을 벌였지만 군부는 이들을 강제 진압하며 1,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다시 한 번 전권을 쥐게 된다.

그림 2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 정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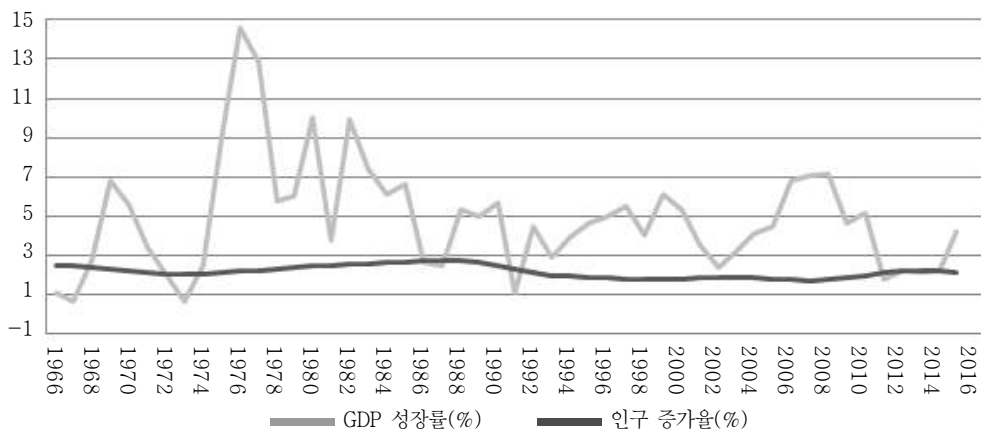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 과도기 정부는 군부 세력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군부는 민간인을 군사 재판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여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2014년 6월, 전 국방부 장관인 압둘 파타흐 알시시 (Abdel Fattah al-Sisi)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집트 내 군부의 권력은 더욱 굳건해졌다. 알시시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 이집트는 부정부패, 실업, 국가 부채, 테러 위협 등으로 혼란스러웠다. 알시시는 취임 즉시 경제구조 개혁과 국가안보 확립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알시시의 경제 및 안보정책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은 무력 진압하는 공포 정치로 국민과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1.3. 경제연망

이집트의 경제 성장은 2011년 민주화 혁명 이후 둔화되었다. 2011년 이후 이집트의 국가 부채는 연간 GDP를 상회하였으며 평균 경제 성장률은 인구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인 2%에 머물렀다. 알시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이집트 경제는 회복하기 시작하여 2015년의 경제 성장률은 4%대를 기록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알시시의 강력한 경제재건 의지가 이집트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외부적으로는 군부 세력이 이집트를 재집권한 것을 환영한 걸프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집트의 경제회복을 이끌었다. 이집트의 경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무역 적자, 재정수지 적

그림 3 GDP 성장률 및 인구 증가율 추이



자료: World Bank(2016).

자, 실업률, 거시경제 불안정 등이 남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집트의 주요 경제지표는 <표 2>와 같다.

표 2 이집트의 주요 경제지표

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내경제	경제성장률	%	1.8	2.2	2.1	2.2	4.2	3.2
	1인당 GDP	US\$	11,210	10,859	11,068	11,303	11,692	12,055
	명목 GDP	십억US\$	242.9	273.3	268.4	296.9	315.0	282.8
	정부부채/GDP	%	80.2	81.6	87.2	89.1	90.2	92.0
	소비자물가상승률	%	10.1	7.1	9.5	10.1	10.4	12.1
	민간소비증가율	%	5.5	5.9	2.6	4.1	2.8	2.1
	실업률	%	12.0	12.7	13.2	13.0	12.8	13.1
대외경제	수출실적	백만US\$	27,913	25,092	26,534	25,269	19,031	15,464
	수입실적	백만US\$	-56,458	-59,827	-56,081	-64,451	-58,285	-51,574
	무역수지	백만US\$	-28,544	-34,735	-29,484	-39,182	-39,254	-36,110
	민간투자증가율	%	-0.3	10.1	-1.5	9.9	20.2	-
	외국인투자금액(당해분)	백만US\$	2,189	3,982	3,753	4,178	6,380	-
	총외채	십억US\$	35.1	39.9	44.4	39.6	44.5	51.1
	외환보유고	십억US\$	17.6	14.9	16.1	14.1	15.5	17.0
	이자율	%	11.0	12.0	12.3	11.7	11.6	12.3
	환율	1\$:EGP	5.94	6.06	6.87	7.08	7.71	9.71

주: 201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3.1. 교역 연왕

이집트는 무역수지 적자 국가이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정권 교체, 테러 위협 증가, 내전 등 정정불안으로 경제가 악화되며 더욱 증가하였다. 2010년 약 300억 달러였던 무역 수지 적자액은 2015년 약 392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이집트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및 석유 제품, 과채류, 면화, 의류, 금속품, 가공식품 등이다. 주요 수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터키, UAE 등 중동과 유럽에 편중되어있다. 한편, 이집트는 중국, 독일, 미국, 터키 등으로부터 기계장비, 식품, 화학제품, 연료 등을 수입한다. 한국-이집트 간 무역규모는 약 24억 달러이며, 이집트의 대 한국 총 수출액은 약 2억 달러,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총 수출액이 22억 달러이다. 이집트는 우리나라로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주로 수입하는 반면 석유제품을 수출한다.

1.3.2. 무역협정 체결 현황

이집트 정부는 1995년 WTO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집트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대륙 가까이에 위치하며 대서양과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이집트 내수 시장과 우회 수출을 겨냥하여 이집트와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 이집트가 맺은 양자 협정은 총 4개로 EU, 터키, 유럽자유무역연합(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남미공동시장(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이 그 대상이다. 이집트는 EU와 맺은 FTA에서 일부 농산품에 대해 쿼터를 해제하고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기로 하였다. 남미공동시장과는 육류, 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우유 등 가공 농축산품에 대한 관세는 4년 이내로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집트는 동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다자간 무역협정도 체결하였다. 특히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등과 체결한 Agadir협정은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철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집트의 경제 재건정책은 투자유치와 수출 확대를 지향하고 있어 향후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3.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이집트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또한 2011년 민주화 혁명의 여파로 크게 위축되었다. 2010년 약 68억 달러였던 순 FDI는 2011년 약 22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하지만 2013년 경제 재건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알시시 정권이 들어서며 이집트 순 FDI가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집트는 100% 외국인자본에 의한 기업설립 보장과 투자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촉진법을 개정하고, 정부차원의 투자포럼을 개최하는 등 FDI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2015/16년 회계연도 기준 대 이집트 FDI 총 유입액은 약 124억 3,4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약 63.5%가 EU 국가로부터, 6.5%는 미국으로부터, 18%는 아랍 국가로부터, 12%는 기타 국가로부터 유입되었다. 대 이집트 FDI는 이집트를 식민 지배하였던 영국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은 대 이집트 FDI 총 유입액의 약 48%를 담당하며, 석유, 천연가스, 태양력 발전 등 에너지부문과 금융, 제약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5/16년 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대 이집트 투자 총액은 약 2,240만 달러로 알시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는 자원개발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인구 증가 및 1인당 GDP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집트는 무한한 성

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가 나서서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대 이집트 FDI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9/10년	2010/11년	2011/12년	2012/13년	2013/14년	2014/15년	2015/16년
순 FDI	6,758	2,189	3,982	3,753	4,178	6,380	6,838
유입액	11,008	9,574	11,768	10,274	10,856	12,546	12,434
미국	1,425	1,791	578	2,183	2,230	2,116	807
영국	4,926	4,307	5,820	3,997	5,079	4,990	5,944
벨기에	930	777	2,089	720	617	664	678
UAE	304	411	560	481	401	1,383	1,329
사우디	323	206	240	461	284	649	313
프랑스	286	227	316	266	347	230	249
스위스	111	159	125	115	95	165	128
그리스	65	41	56	18	46	5	2
네덜란드	129	146	409	164	192	182	246
대한민국	0	4	5	24	47	164	224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http://www.cbe.org.eg>).

1.4. 주요 산업 현황

2015년 기준, 이집트 전체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은 1차 산업 11.18%, 2차 산업 36.32%, 3차 산업 52.5%이다. 세부 산업별로는 제조업, 광산업, 농업, 관광업이 이집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농업이며, 건설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관광업이 그 뒤를 잇는다.

1.4.1. 제조업

이집트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견실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국가이다. 제조업은 이집트 GDP의 약 16.8%를 차지하며, 고용의 11.1%를 담당한다. 19세기까지 이집트는 농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제조업에는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 1974년, 이집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법을 제정하였다. 이 투자법을 계기로 이집트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민주화 혁명 전 정권인 무바라크 정권은 자동차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것에 집중하였다. 제너럴모터스,

도요타, 스즈키, 크라이슬러 등 많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이집트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였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정권 교체, 폭력 사태 등이 계속되자 일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다. 이집트 자동차 제조 산업은 침체를 겪었지만 정부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세금을 감축하는 등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회복이 기대된다.

1.4.2. 광산업

이집트의 광산업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을 기반으로 이집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광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3%이며, 총 고용 비중은 0.2%이다. 다만, 원유의 경우 기술이 부족하여 정제된 원유를 재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천연가스 산업은 이집트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산업이다. 이집트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1.2%이며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출하고 있다. 글로벌 자원기업들이 이집트 가스개발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천연가스가 개발 및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4.3. 관광산업

이집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시민혁명 전 2010년 관광산업은 이집트 전체 GDP의 18%를 차지하였다. 관광산업은 이집트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여주는 산업이었으며 연평균 성장률 또한 16%를 넘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정치 불안으로 치안이 악화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2014년 기준, 관광업의 GDP 비중이 11%까지 급감하였고 관광객 수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외교부도 2016년 12월 현재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철수 권고 지역으로, 그 외 지역을 여행자제지역으로 지정해놓은 상태이다. 관광산업의 위기는 이집트 외환보유고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2011년 초 360억 달러였던 외환보유고는 2016년 175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외환보유고 확충이 시급한 이집트 정부는 2020년까지 관광객 3,000만 명 이상이 이집트를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¹⁾,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해당 부문 투자액이 2012년 약 3억 771만 달러에서 2014년 16억 8,142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1) 2015년 기준 방문 관광객은 1,029만 명임.

2. 농업 현황

농업은 이집트 고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27.1%를 담당한다. 또한 농업은 GDP의 14.5%, 외화 수입(foreign exchange earnings)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 이집트는 농산물 순 수출국이었지만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는 식량 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알시시 정부는 집권이후 외화 수입 증가의 수단으로 농산물 생산량 증가와 수출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는 농경지 개간, 비료 지원 정책을 통해 농산물을 증산하여 내수를 충당하고 수출 증가까지 꾀하고 있다.

2.1. 농업 현황

이집트에서 농업이 시작된 시기는 1만 2,000년 전으로 추정되며, 벽화 등 현존하는 자료로는 약 6,000년 전의 이집트 농업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집트는 최초로 체계적인 관개시설을 구축하였으며, 가장 먼저 농업 달력을 이용해 농사를 지은 국가이다. 이집트가 일찍이 농업 문명을 형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풍부한 수자원인 나일강과 규칙적인 기후 변화였다. 매년 여름, 나일강은 범람하여 토양 오염물은 쓸어버리고 영양분이 풍부한 잔존물만을 남긴다. 물이 빠진 후 잔존물은 비옥한 흑토(黑土)가 되어 이집트 농업의 근간이 되었다. 농부들은 두텁게 쌓인 흑토에 11월 파종하여 4월과 5월에 수확하였다.

이집트 국민은 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전체 인구의 약 53%(약 4,816만 8,000명)가 농촌 지역 인구이다. 이집트 농업은 소규모 농장이 상당수이며 전체 농장의 70% 이상이 0.42ha 이하의 규모이다. 대부분의 농지는 사유화되었으며, 정부 사업에 의해 새롭게 개간된 농지도 80% 이상 개인에게 매각되었다. 대표적인 하계 작물은 곡물, 옥수수, 쌀, 면화, 토마토, 감자, 오이, 멜론 등이 있으며, 동계 작물은 밀, 잡두(broad beans), 이집트 클로버(berseem), 오렌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집트 토지 면적(land area)은 총 9,954만 5,000ha이며, 영토 대부분이 건조한 사막이다. 이집트 영토는 지형 특징별로 나일강과 델타 지역, 서부 사막, 동부 사막, 시나이 반도로 나뉜다. 나일강과 델타 지역은 이집트 영토의 5.5%에 해당하지만, 인구의 95%가 이곳에 거주한다. 서부 사막은 대부분이 건조한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부 지역의 오아시스 주변에서 일부 농산물이 생산되기는 하지만 생산량은 미미하다. 동부

사막은 나일강 오른 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산악 지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동부 사막은 건조하고 지형이 평탄하지 않아 정착민이 거의 없으며 영농 활동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석유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나이 반도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지만 산악 지형과 모래 해변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 즉, 이집트에서 농사가 가능한 지역은 나일강과 델타 지역, 오아시스 주변 지역뿐이다. 최근 식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이집트는 사막 및 해안을 개간하여 경작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집트 토지의 90% 이상이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이집트 농업은 작물재배가 가능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행해진다. 이집트 전체 농경지 면적은 2013년 기준 376만 1,000ha로 전체 토지 면적의 약 3.78%에 불과하다. 농경지의 90% 이상이 수자원이 풍부한 나일강과 델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농경지는 오아시스 또는 샘물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농사가 가능한 지역은 매우 제한적인데 이마저도 황폐화되어 비옥함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토지 황폐화를 예방할 목적으로 가축 방목 제한, 사막에 나무 심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황폐화 속도가 더뎠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는 강우량이 매우 적은 국가이다. 지중해에 인접한 이집트 북부지역 외의 연간 누적 강우량은 약 120-150mm이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유일한 수자원 공급원이다. 이집트는 수단, 에티오피아 등 나일강 주변 국가와 물분배협약(water-sharing treaty)을 체결하여 연간 555억 m³의 물을 나일강을 통해 공급받으며, 이를 포함한 이집트의 총 가용 수자원은 2011년 기준 692억 5,000m³이다.

이집트는 전체 수자원의 약 85%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만큼 농업을 중시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집트 2030 비전’의 지속가능농업개발계획에 따르면 이집트의 1인당 담수는 2008년 771.0m³에서 2030년 550m³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농가에게 물 소비가 적은 작물 재배하거나 생활하수를 농업용수로 재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2.2. 주요 작물 및 특징

이집트는 따뜻한 기후 덕분에 일 년에 최대 삼모작이 가능한 국가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대표적인 생산 작물은 사탕수수, 사탕무, 밀, 면화, 오렌지이다.

표 4 2011년 이집트 주요 식품 식량수급표

단위: 천 톤

구분	국내 공급				국내 유통					
	생산량	수입량	재고변화	수출량	식용	가공용	사료용	종자용	폐기	기타
곡식 (맥주 제외)	20,124	17,107	-175	262	20,037	256	12,278	333	3,555	341
-밀	8,407	9,836	2	181	11,598	0	4,170	241	2,060	0
-쌀	3,785	101	-177	44	3,137	0	114	58	220	138
-보리	122	22	0	25	23	21	61	5	9	0
-옥수수	6,876	7,121	0	9	5,023	147	7,396	22	1,198	203
뿌리작물	4,721	178	0	834	3,049	0	0	506	485	26
-감자	4,338	178	0	816	2,749	0	0	478	448	26
-고구마	275	0	0	15	223	0	0	10	27	0
설탕작물	23,251	0	0	1	3,100	18,430	1,411	172	137	0
-사탕수수	15,765	0	0	1	3,100	11,094	1,261	172	137	0
-사탕무	7,486	0	0	0	0	7,336	150	0	0	0
채소	10,409	50	0	589	8,830	0	0	0	1,041	0
-토마토	8,105	50	0	98	7,247	0	0	0	811	0
-양파	2,304	0	0	491	1,583	0	0	0	230	0
과일	9,942	390	18	1,750	7,620	7	0	0	989	0
-오렌지	3,426	7	0	1,075	2,025	0	0	0	343	0
-바나나	1,054	26	0	10	962	0	0	0	108	0
-대추	1,374	5	0	24	1,217	0	0	0	138	0
-포도	1,321	23	0	63	1,141	7	0	0	132	0
육류	2,085	196	0	0	2,373	0	0	0	0	0
-쇠고기	850	196	0	0	1,045	0	0	0	0	0
-양염소고기	127	0	0	0	128	0	0	0	0	0
-돼지고기	0	0	0	0	1	0	0	0	0	0
-가금육	888	0	0	0	921	0	0	0	0	0
계란	306	0	0	0	0	0	0	68	12	0
우유 (버터 제외)	5,789	0	1	0	0	50	915	0	289	42
수산물	1,363	0	0	0	0	0	36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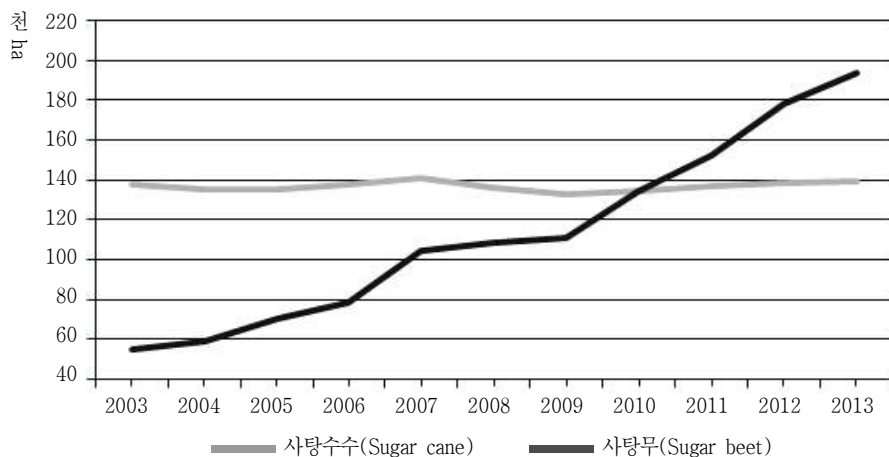
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2.2.1. 사탕수수 및 사탕무

2016년 현재 이집트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작물은 사탕수수이지만, 사탕수수 생산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농업용수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농

가에 사탕수수보다 사탕무를 재배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헥타(feddan)²⁾의 사탕수수 재배지에는 약 8,000m³의 농업용수가 필요하다. 반면 같은 면적의 사탕무 재배지는 약 3,000m³의 물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탕수수는 사탕무에 비해 재배 기간이 길어 농가의 사탕무 재배 선호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그림 2 참조>. 사탕수수는 주로 나일강 근처에서 재배되며 2월이나 9월에 파종되어 10-12개월 재배 후 수확되는 반면, 사탕무는 8월에 파종되어 3월에 수확되어 이모작이 가능하다. 정부 정책, 사탕무 재배의 이점 등에 따라 이집트의 사탕무 재배지 및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5 사탕수수 및 사탕무 재배 면적 변화



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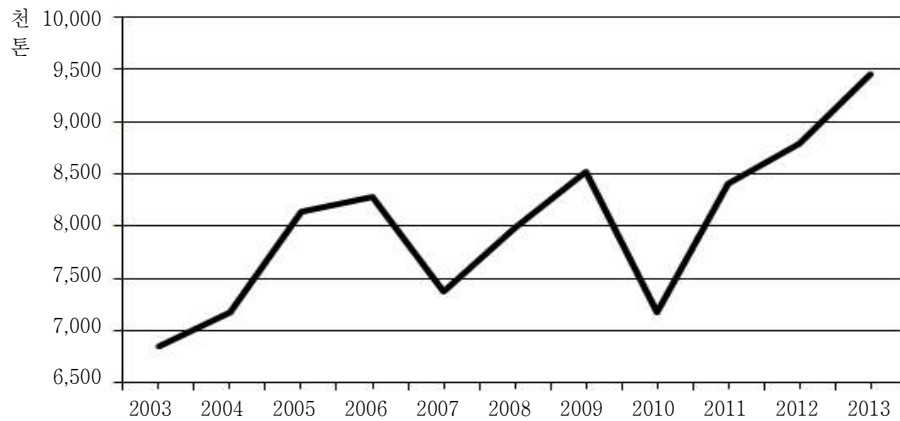
2.2.2. 밀

빵을 주식으로 하는 이집트는 최대 밀 수입국이다. 이집트 국민의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180kg으로 미국인 소비량의 3배에 달한다. 이집트인은 낮은 소득 수준, 문화적 규범 등 복합적인 이유로 곡물 가운데 밀을 가장 많이 소비하며, 이집트의 높은 밀 소비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밀은 이집트 국민의 기초 식량이지만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2030년 까지 이집트 인구는 1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집트의 밀 수입량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식량 안보를 확보

2) 이집트, 시리아, 수단, 오만 이 토지 크기를 측정하는 아랍 전통 단위임. 이집트가 도량형을 미터법으로 통일하면서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법률 서류 등 행정 문서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 1헥타는 4,200평방미터임(두산백과).

하고 밀 수입에 따른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밀 증산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이집트 토양 및 기후에 맞춘 품종 개선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2013년 이집트 밀 생산량이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그림 6 참조>.

그림 6 밀 생산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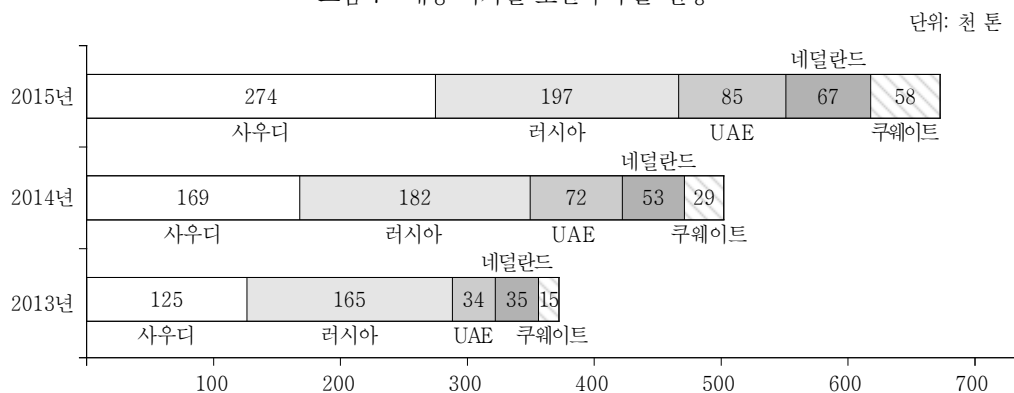


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2.2.3. 오렌지

이집트는 최대 오렌지 수출국으로 약 13만 ha의 농지에서 오렌지를 재배하고 있다. 이집트가 수확하는 과실의 약 30%를 오렌지가 차지하고 있다. 이집트의 연간 오렌지 생산량은 약 240만 톤이며, 이 가운데 63%는 내수, 33%는 수출, 나머지 4%는 주스 원

그림 7 대상 국가별 오렌지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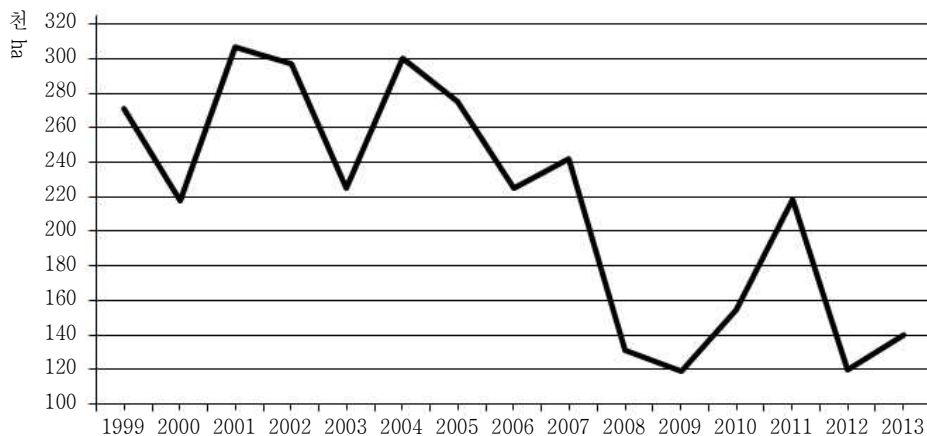
자료: USDA(www.usda.gov).

료로 사용된다. 오렌지는 다른 작물에 비해 공급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소규모 농가도 오렌지 재배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이집트 전역에서 오렌지가 재배되며 특히 나일강 유역 녹지(green area)가 오렌지의 주요 재배지역이다. 이집트의 오렌지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최근 러시아가 터키산 오렌지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이집트의 오렌지 수출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2.4. 면화

이집트산 면화는 세계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이집트 대표 작물이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면화는 이집트 농업 품목 가운데 수출량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중국 등 신흥개발국의 섬유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집트산 면화는 경쟁력을 잃었다. 1999-2000년, 이집트의 연평균 면화 수출량은 2만 5,000톤에 달했지만 2013-14년 수출량은 5,670톤으로 감소하였다. 이집트 농가가 면화생산을 수작업으로 진행하여 다른 면화 생산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집트 면화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줄어들자 농가는 면화 생산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그림 7 참조>. 정부는 이집트산 면화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면화 수매 제도, 면화 재배 농가 보조금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품질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면화 품질 및 생산성 개선 연구도 진행 중이다.

그림 8 면화 재배면적 변화



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2.3. 이슬람문화와 식품소비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인 이집트의 식품소비는 이슬람 율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슬람은 할랄(Halāl)과 하람(Harām)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할랄은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람은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랄과 하람의 엄격한 잣대는 이집트 무슬림의 식품 소비에도 적용된다. 이슬람은 일부 축산물과 모든 알코올의 섭취는 금지하지만 과채류, 곡물의 섭취는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채류와 곡물은 알코올로 발효되지 않는 한 모두 할랄(허용하는 것)의 범주에 포함된다. 반면 이슬람은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정의하고 돼지고기 및 돼지가죽에서 추출한 젤라틴이 들어간 모든 식품의 섭취를 금지한다. 실제로 이집트 국민의 돼지고기 총 소비량은 2015년 기준 약 700톤이며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0에 가깝다. 반면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하는 쇠고기, 가금육, 양고기의 총 소비량은 각각 163만 3,300톤, 113만 6,000톤, 15만 9,600톤이었다.

이집트인 식품소비의 또 다른 특징은 명절에 식품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집트인은 무슬림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을 무사히 마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인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에 평소보다 70% 많은 돈을 식품 소비에 지출한다. 이집트인은 평균적으로 한 해 전체 소득의 45%를 식료품 구매에 사용하는데 이 가운데 15%가 이드 알-피트르 기간에 쓰인다. 이집트의 또 다른 주요 명절은 이드 알-아드하(Eid al-Adha)이다. 이드 알-아드하는 메카 성지순례를 마친 후 행해지는 이슬람 명절로 희생제라고 불린다. 메카 성지 순례에 참가하지 못한 이집트 무슬림은 이드 알-아드하 기간에 양, 소 등을 도축하여 제를 올린 후 가난한 사람과 나눈다. 이 기간에 육류, 특히 양고기 수요 급증하여 양고기 가격이 30% 정도 폭등한다.

3. 농업 정책

3.1. 과거 농업 정책

이집트 농업개발계획(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은 1980년대 이후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개발계획은 국내외 상황에 따라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네 차례 수정되었다. 2016년 현재, 이집트 정부는 지속가능농업개발계획 2030(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towards 2030, 이

하 SADS 2030)을 바탕으로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1980년대 농업개발목표는 농업부문 민간화, 연간 평균 농업생산성 3.4% 제고 등이었다. 정부는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농업용수 등 농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염도가 높은 토지와 알칼리성 토지도 경작지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개간된 농경지에 관개시설을 건설하였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농가의 농산물 생산량 증가를 유도하였다.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 농업 총 수출액을 50억 이집트 파운드(약 2억 7,500만 달러)로 늘리고 연간 농업 성장률을 3%까지 올리는 것에 매진하였다. 정부가 관리하던 면화의 생산과 판매, 수출 등이 모두 민간에게 맡겨졌으며, 농업생산성 연구가 촉진되었다. 1990년에는 개간된 경작지의 토지분배 기준과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2017년 완수를 목표로 하는 농업개발계획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곡물 자급률 제고, 연간 농업성장률 4.1% 달성, 매년 15만 헥타(6만 3,000ha)의 경작지를 개간 등을 완수할 예정이다. 2017년 농업개발정책의 구체적 시행 방안은 관개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 잠식 문제 해결, 전략 작물 자급 등이 있다.

이집트 농업은 약 40년에 걸친 개발계획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1980년대까지 587만 헥타(약 246만 5,400ha)이던 농지면적은 2016년 895만 헥타(약 376만 1,000ha)으로 증가하였다. 작물 재배면적(cropped area)도 111만 헥타(약 47만 ha)에서 152만 헥타(약 64만 ha)로 확대되었다. 면적당(per land unit) 농업 생산성과 가축의 정육율(fresh meat percent) 또한 개선되었다. 농업개발계획으로 농업부문은 40년간 매년 평균 3-4% 성장하며 인구 증가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부족분을 충당해나갔다.

3.2. 지속가능농업개발계획 2030

2015년, 이집트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농업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성과를 토대로 SADS 2030을 수립하였다. SADS 2030의 비전은 '농업 부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경제 전반의 발전을 꾀하고 농촌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SADS 2030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으로 '비교우위를 지닌 농산물을 집중 육성, 지형 및 환경의 이점 활용, 농업 현대화를 통한 식량안보 확보 및 농가소득 증진 달성'을 내세웠다. SADS 2030의 전략 목표는 ① 농업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② 농업 생

산성 제고, ③ 농산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④ 주요 작물의 식량 안보 수준 제고 등이 있다. 목표별 세부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3.2.1. 농업자원의 확대

이집트는 물 부족 국가이며 유일한 수원인 나일강 물 사용량도 ‘물분배협약’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농업용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수송 과정에서 약 30%, 관개 과정에서 약 50%의 물이 유실된다. 이집트는 관개수로(irrigation canals)와 농장 내 관개시스템을 개선하여 용수 손실률을 2017년에 25%, 2030년에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한 많은 농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쌀 재배 면적(harvested area)을 2013년 70만 ha에서 약 55만 ha로 축소하여 2030년까지 124억 m³의 물을 절약할 계획이다. 수자원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빗물관리기술도 도입하여 빗물의 증발을 막고 강수(rainfed water) 사용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농경지를 확대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SADS 2030의 전략 과제이다. 계획에 따르면 이집트는 2017년까지 125만 헥타르(약 52만 5,000ha), 2030년까지 310만 헥타르(약 130만 2,000ha)의 농경지를 추가로 개간할 계획이다. 기존 농경지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이집트의 농지가 집중되어 있는 나일강과 델타 지역이 도시화에 잠식되고 있다. 매년 평균 2만 헥타르의 나일강과 델타 지역 농지가 도로, 고층 건물 등의 건설로 사라져 간다.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주변 농경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근방 농경지의 토양 비옥도마저 저하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농경지 토양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비료 사용량, 새로운 배수 시스템 개설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3.2.2. 생산성 제고

이집트는 농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은 첫째, 고온과 염분에 내성이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다. 품종 개발은 정부 주도 아래 농업연구개발센터(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가 유전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이끌 것이다. 이집트를 포함한 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은 고온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가뭄에 강한 품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 해안가를 따라 간척지를 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염분에 내성이 강한 품종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둘째, 물 사용량이 적은 원예 작물의 재배를 확대하는 것이다. 올리브, 대추야자, 무화과, 석류, 포도 등 원예 작물의 재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

의 물이 사용된다. 이집트는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원예작물 수확량을 집중적으로 확대하여 대표 수출작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셋째, 농장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소규모 농가에 파견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최신 농업기술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농가에 파견되어 정부가 권장하는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집트 정부가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은 국민의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에 있다. 특히 중소규모의 축산농가 성장에 집중하여 국민의 단백질 섭취의 질적·양적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집트의 소 및 버팔로 가축 산업의 주요 생산물은 우유이며 육류(red meat)는 우유 생산의 부산물로 여겨진다. SADS 2030 또한 육류보다 우유 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1980년대 이후 이집트의 인구 증가와 함께 우유 수요가 급증하였다. 정부는 유전공학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소와 버팔로의 체중을 줄여 육류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우유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브루셀라(Brucellosis),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리프트게곡열(Rift Valley disease), 소 결핵(bovine tuberculosis)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조기 예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질병에 따른 우유 생산량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금육 또한 증산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수를 34만 8,000마리로 늘리고, 53만 6,000마리를 수입하여 가금육 및 계란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다.

3.2.3.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집트 농업은 무역 자유화, 지역주의 확산, 농산물 품질 경쟁력 저하 등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집트는 과거에 농산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과 유럽 시장에 근접한 위치의 혜택을 누렸다. 환경적·지리적 이점 덕분에 농산물은 오랫동안 이집트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1960년대 초까지 농산물 수출은 총 수출의 85%를 차지했다. SADS 2030은 이집트 수출을 이끌었던 면화, 쌀, 양파, 땅콩, 신선 채소 등의 수출을 지속하는 한편, 방향 식물(aromatic plant), 유기농 제품, 절화(cut flowers), 관상식물 등 새로운 농업 수출상품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의 유기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며 이집트 유기농업이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재배지는 2006년 1만 4,200ha에서 2013년 8만 5,800ha로 급증하였다. 이집트에서 유기농법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감자, 망고, 바나나, 살구, 딸기, 곡물, 면화 등으로 다양하다. 이집트 유기농업은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유기농산물 재배지는 여전히 전체 농지의 0.2%에 불과하다. 유기농업이 이집트 농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미미한 원인은 극히 소수 농가만이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제 표준을 숙지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정부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유기농업을 독려하고 있다. 일례로 파이옴유기농발전협회(Fayoum Agro-Organic Development Association)는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가 인증 획득, 유기농업 기술 전수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집트 나일강 일대는 비옥하여 예로부터 비료 없이도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해 왔다. 비옥한 농토에 유기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해져 유기농 산업은 이집트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3.2.4. 식량 자급률 제고

이집트는 식량 위기와 식량가격 폭등에 대비하여 식량안보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집트 인구는 2016년 약 9,116만 명에서 2030년 1억 6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식량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정부는 주요 식품의 안보 수준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SADS 2030을 통해 목표로 하는 품목별 식량자급률은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식품의 식량자급 목표치

단위: 천 톤, %

주요 식품	2007년			2017년 목표치			2030년 목표치		
	생산량	수요량	자급률	생산량	수요량	자급률	생산량	수요량	자급률
밀	7,388	13,591	54.4	12,000	16,238	73.9	15,120	18,709	80.8
쌀	4,553	3,273	139.1	4,161	3,956	105.2	4,809	4,664	103.1
옥수수	6,300	11,900	53.2	12,600	16,100	78.3	18,500	20,600	91.9
설탕	1,487	1,933	76.9	2,260	2,760	81.9	3,460	3,710	93.3
잠두	301	578	52.1	480	690	69.6	720	795	90.6
감자	2,793	1,548	180.4	3,600	2,024	177.9	4,900	2,650	184.9
토마토	7,888	7,623	103.5	11,600	9,200	126.1	18,600	10,812	172.0
오렌지류	3,594	2,672	134.5	5,400	3,496	154.5	7,500	4,240	176.9
포도	1,783	1,294	128.5	2,400	1,656	144.9	3,500	2,120	165.1
우유	4,400	4,859	90.6	7,200	7,332	98.2	9,540	9,540	100
적색 육류	670	1,001	66.9	853	1,104	77.3	1,089	1,166	93.4
백색 육류	850	847	100.4	1,095	1,095	100	1,410	1,410	100
계란	240	240	100	288	288	100	373	373	100

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이집트 정부는 식량안보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식품소비 패턴 변화와 영양상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집트 국민의 식품소비는 고열량 탄수화물 식품에 집중되어있다. 반면 비타민A, 비타민C, 철, 아연, 칼슘 등은 충분히 섭취되지 않는다. 인구의 45%가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비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유, 계란, 생선, 백색 육류 등 근력 강화식품과 함께 채소 과일의 국내 생산을 독려할 계획이다. SADS 2030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민 1인당 적색육류 소비량을 18% 줄이고, 백색육류 소비량을 18% 늘릴 전망이다. 우유와 계란, 생선의 1인당 섭취량도 각각 27%, 13%, 13% 증가시켜 국민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극복할 계획이다.

4. 맺음말

이집트는 제한된 수자원, 농지 황폐화, 낮은 농업 기술력으로 인해 농업발전이 더디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인구가 급증하여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들어 인구 증가와 함께 1인당 GDP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식량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 정부는 부족한 식량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와 외화부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집트는 풍부한 인적자원, 작물재배에 적합한 환경, 유럽과 걸프 국가 등 거대시장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농업발전 잠재력이 크다. 또한 정부가 농업 중심으로 경제를 재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농업부문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농업 생산성과 인프라 발전이 주춤하였지만 알시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안정을 되찾고 있다. 정부는 농지 개간, 관개시설 및 수송 인프라 건설, 농산물 품질제고 연구, 농업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농업정책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농업부문의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집트 정부가 농업을 이집트 경제 발전의 뿌리산업으로 여기고 단계적 농업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농업 생산물의 양적 확대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 농업 진흥정책에서 나아가 프리미엄 면화 등 이집트 농업의 장점을 부각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과거에 누렸던 대표 농업국가로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종도, 최영길. 2014. “신앙과 음식: 이슬람 음식법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4권 4호. 한국중동학회.
- 조희선. 2016. “‘아랍의 봄’ 전후의 정치와 젠더화 —이집트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제35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카이로 무역관. 2015. 2016 이집트 진출전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Ahemd, Hidji. Why Egypt's 'white gold' production is now in decline. Al-Monitor. 2016.06.24.
- FAO. 2009. Arab Republic of Egypt -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towards 2030. FAO
- Mohamed, Alaa El Di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Egypt 2030, to be announced before year-end. Daily News Egypt. 2016.10.11.
- The embassy of Denmark. 2014. Egypt: Food, Agriculture and Agrobusiness.
- The embassy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2015. Agribusiness and Food Production in Egypt.
- World Bank. 2014. The World Bank Group and The Global Food Crisis : An Evaluation of The World Bank Group Response. World Bank.

참고사이트

-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 세계은행 (<http://www.worldbank.org>)
- 알모니터 (<http://www.al-monitor.com>)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
- 이집트 농업 정책 (<http://www.marefa.org>)
- 이집트 농업 2030 비전 (<http://www.masrawy.com>)
- 이집트 중앙은행 (<http://www.cbe.org.eg>)
- 이집트 2030 비전 (<http://sdsegypt2030.com/>)
- FAO 통계 (<http://www.fao.org/faostat>)
-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
- OECD 데이터 (<https://data.oecd.org>)
- USDA (<http://www.usda.gov>)